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41호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칼럼

#### 채용공고

주재헌 ESPOUSE EARTH 대표 / 체육시민연대 자문변호사

### 체육시민연대 사무국 소식

신일본스포츠연맹과 국제교류 세미나

“학교 운동부 활동의 지역 클럽 전환에 대하여” 개최

### 2022년 국정감사브리핑

#### “체육계 고질적 폭력·성폭력 여전...5년간 95건”

홍재희 뉴스핌 기자

####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절반서 ‘0건’ 이용

김유승 뉴스1기자

#### ‘성남FC 수사’ 두고 고성 오간 체육회 국감...설전 이어지자 정회

고동욱 연합뉴스 기자

#### 은퇴 운동선수 절반 무직 또는 월 수입 200만원 이하

김희윤 아시아경제 기자

#### 무시 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체육단체 징계 이행건수 절반이하

박정환 뉴스1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는  
인권이요

체육시민연대  
사무국 소식

체육시민연대 & 신일본스포츠연맹

# 국제 교류 세미나

주제

## 학교 운동부 활동의 지역 클럽 전환에 대하여

○ 일시 : 10/17(월),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 방식 : 실시간 온라인(ZOOM)

◇ 사회 [신일본스포츠연맹]

사토요시유키

◇ 발제 [신일본스포츠연맹]

학교체육연구동지회

◇ 통역 [체육시민연대]

주성택 한국스포츠미래전략연구소 소장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 채용공고

주재헌

ESPOUSE EARTH 대표 / 체육시민연대 자문변호사

필자는 몬테소리를 비롯한 영유아 교육사업을 하는 기업인이다. 자극에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감각 및 소근육 (Sensorial and Fine Motor Skills) 발달과 정서 안정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그 다음 단계로 신체 단련에 필요한 대근육(Gross Motor Skills) 발달과 창의성 발현을 위한 '스포츠교육부' 신설을 계획중이다. 영유아기에 발달된 감각 과 단련된 신체는 평생의 지능과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교육부를 통해 본래적 의미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려는 사업목표가 있다. 스포츠 교육을 담당하는 직장인들이 중심이 되어 직장운동을 활성화하고 그 안에서 국가대표도 배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직장운동경기부 창설이다.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의, 연대, 평화의 메시지는 ESG 경영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해 스포츠교육부는 친환경 스포츠를 지향한다.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의 평균 온도를 섭씨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는 UN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기후행동에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스포츠도 반드시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포츠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는 이처럼 인간의 전인격적 발달과 기업의 ESG 경영, 나아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에게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당 그리고 대한체육회 모두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시 출석인정 결석일수 확대' 논의까지만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선수에 대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2019. 6.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초중고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에 관한 내용을 2차 권고안에 담았다. 학교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교육활동이므로 '학생은 학교에서 자신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를 배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학습을 도외시한 채 반복적인 훈련에만 매달려 학력이 저하되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학생선수는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출석인정 결석일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반면, 현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라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 일수의 3분의1' 범위(63~64일)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4월부터 추진중이다. 운동능력과 성적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동에 더 전념하고 싶어하는 현실과 학교에서 부족한 훈련을 교외에서 충당하려다 보니 경제적 비용이 늘고 오히려 학생선수들의 휴식권이 위협받는다는 고충을 반영한 것이다.

양측 모두 일용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출석인정 일수의 확대 또는 축소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학생선수를 위한 e-school의 운영이 체육 지도자들에게 사실상 위임되어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선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산업화, 민주화 세대와 달리 요즘 학생선수들은 다양한 끼와 능력을 글로벌하게 발휘하는 세대인만큼 보다 다양한 지표와 요소로 학생선수의 미래를 고심하고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사명이다.

국정운영 및 기업경영 성과가 재무적 항목에 비재무적 항목까지 더해 평가받는 ESG 경영으로 대전환되고 있듯이 스포츠에서도 학생선수의 운동능력 및 성적과 더불어 출결, 교우관계, 교과성적,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공부와 운동의 이분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선수로서의 성공 이외에 스포츠 행정, 교육, 연구, 미디어, 외교, 법률, 산업, 복지, 환경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학생선수의 다양한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을 소개해 드렸으니 많은 지원을 기대해 본다.

[irlkjh@hanmail.net](mailto:irlkjh@hanmail.net)

2022.10.17

# “체육계 고질적 폭력 성폭력 여전...5년간 95건”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와 운동선수가 지난 5년동안 성폭행, 성추행, 폭력,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으로 모두 95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7월말까지 국가대표가 받은 징계는 총95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최근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으로 징계된 사건은 총 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받은 징계는 총8건,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도 6건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4건, 횡령·배임은 3건으로 확인됐고, 사회적 물의 및 품위 훼손으로 징계 받은 건수가 총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종목단체는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로 각각 14건에 달했다.

이어 대한스키협회 11건, 대한핸드볼협회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징계유형으로 보면 자격정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30건, 출전정지 11건, 제명 10건순이다.

이용호 의원은 "운동선수에게 기량보다 중요한 덕목은 스포츠맨십이다"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육계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폭력 및 성폭력 문제 등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절반서 ‘0건’ 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의 가맹시설 절반 가량이 단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맹시설 2256곳 가운데 한 번도 이용되지 않는 가맹시설이 1109곳으로 49.2%에 달했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가맹시설이 2017년 791곳에서 올해 2256곳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홍보해왔지만, 현재 확대된 가맹시설의 절반 가량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가맹시설이었다.

또 전체 가맹시설 중 10회 이하 집행된 곳이 492곳으로 21.8%였고, 40회 이상 다수 집행된 곳은 200곳으로 8.9%에 불과했다.

또 올해 기준 전체 2256개 가맹시설 가운데 749곳은 장애인스포츠강좌 프로그램조차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이 관련 프로그램도 없는데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된 것이다. 특히 공공시설(전체 296곳)의 경우 절반이 넘는 149곳(50.3%)에서 장애인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다.

김예지 의원은 "공단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프로그램도 개설하지 않는 가맹시설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가맹시설을 포함하고선 가맹시설이 늘었다고 홍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성남FC 수사' 두고 고성 오간 체육회 국감... 설전 이어지자 정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4일 대한체육회 대상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스포츠단체 운영이 엘리트스포츠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운동부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정치가 개입할 때 스포츠가 얼마나 망가지느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남FC의 사례"라고 말을 꺼냈다.

김 의원이 '성남FC'를 거론하자, 야당 의원석에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두산의 후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있었고, 그간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3년 이상 미적거리다가 이제야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두산건설이 의료용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계속 신청했으나 워낙 특혜라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하면서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줬다"며 "아무 대가 없이 (후원금이) 갔겠느냐. 그러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와 이에 반박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가급적 서로의 질의에 대해 상호 존중도 해 주셔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도 주의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나온 부분만 얘기하겠다"며 사실상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을 계속 읊어나갔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억지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여당 의원석에서는 "동료 의원의 질의는 존중해줘라"며 서로 고성이 오갔다.

양측의 입씨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며 국감을 중단시켰다.

# 은퇴 운동선수 절반 무직 또는 월 수입 200만원 이하

매년 1만명에 이르는 운동선수들이 은퇴하는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들은 대부분 20대에 은퇴 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지만, 정부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정책·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퇴선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만7046명이 평균나이 23.6세에 운동선수 생활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23%가 가장 많았다. 태권도 13%, 야구 5%가 그 뒤를 이었다. 은퇴를 결심한 이유로는 불안한 미래(29.8%), 부상(24.8%), 경쟁력 부족(12.1%)을 꼽았다.

은퇴 이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스포츠 관련 업종 취직이 29.8%인 반면, 아무런 직업도 갖지 못한 무직이 41.9%나 됐다. 이는 청년 실업률 8.9%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취업했더라도 비정규직이 64.6%에 달했으며, 월수입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51.6%로 집계됐다.

그러나 은퇴선수들에 대한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퇴선수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체육 분야 예산 중 0.1%, 대한체육회 전체 예산 중 0.4%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매년 1만명에 이르는 은퇴선수들 가운데 절반 넘는 수가 20대에 은퇴 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은퇴 선수들이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체육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무시 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징계 이행건수 '절반 이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마친 111건에 대해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46건만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8월 설립 이후 센터가 조사를 마치고 111건에 대해 각 단체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건 중 실제 징계가 이뤄진 건은 46건에 불과했다.

특히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구한 30건 중에서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가 이뤄진 건은 13건에 불과했다. 중징계 요구 건 중에는 단체에서 '불문'에 붙이거나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진 건도 있었다.

또한, 전체 111건 중 소송 등을 명분으로 징계를 미루는 건이 56건에 달했다. 2020년에 징계요구가 내려진 건 중에 9건, 2021년에 징계요구가 내려진 건 중에 36건, 2022년에 징계가 내려진 건 중에는 11건이 '소속 체육단체 처리중'이라며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병훈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가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문체부의 의지 부족과 각 단체의 의도적 무시 탓"이라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조사권 강화, 징계요구의 강제적 관철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간 스포츠 소식

'회장직 상실 오명' 광주시체육회, 수년간 직원도 7명 징계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4\\_0002047989&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4_0002047989&cID=10201&pID=10200)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선수들 최대 적은 부상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17/115989114/1>

체육훈장 청룡장에 양궁 간판 김우진 등 7명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1414115389709>

남부대학교 김예슬 선수, 라이플 선수권대회서 은메달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21017000584>

은퇴 선언 정혁 "박수 받으며 떠나 기뻐...맞춤형 선수로 기억되고파"

<https://www.news1.kr/articles/4834597>

'9명 재계약 불가 통보' 키움, 준PO 앞두고 선수단 정리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10151625003&sec\\_id=510201&pt=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10151625003&sec_id=510201&pt=nv)

[안승호의 PM 6:29] 요즘 선수들, 요즘 코치들 그리고 배영수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10171021003&sec\\_id=510201&pt=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10171021003&sec_id=510201&pt=nv)

U23 야구 대표팀, 세계선수권 2차전서 쿠바에 끝내기 승리

<https://www.news1.kr/articles/4834443>

"떨리고 마음이 이상..." 강병현, 28년 '선수' 타이틀 내려놨다 [★창원]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101613094152946>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